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국내·외 1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전적 전산화 성과물을 하나로 결집하는 '디지털 통합대장경'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언어 경전들을 검색·비교·분석하고자 했던, 5년전 세계 불교학자들의 서원이 현실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국내·외의 경전 전산화 현황과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가져올 학계의 변화를 알아본다.

〈편집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2월 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총 15장의 CD본(本) 팔만대장경의 봉정식을 연다. 팔만대장경판 모습.

고려대장경硏, 디지털 통합대장경 12월 시연

다언어 경전 비교-분석 쉬워진다

전산화 현황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전적 전산화 사업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의 팔만대장경 전산화 및 디지털 통합대장경 개발, 동국대 불전연구소의 (소장 보광)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진각종 종학연구소(소장 혜정)의 밀교경전 전산화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연구소는 올 12월 6일 팔만대장경의 경·율·논 모든 내용을 담은 CD 15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세계 불교학계에서 '꿈의 대장경'으로 간주해온 '디지털 통합대장경'의 모델을 제시한다.

팔만대장경 CD는 9년간 경전의 입력과 교정을 반복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작업에 매달려온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최종 전산본이다. 또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그 동안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을 만들어온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한문·티베트어·빨리어 대장경과 그 외 불교전적을 하나의 틀에 묶은 세계 최초의 다언어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대장경이다.

지난해부터 불교전적 전산화에 뛰어든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도 최근 총 12권의 〈한국불교전서〉 가운데 1·4권에 대한 전산본을 공개하고, 2005년까지 나머지 총서를 전산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기류 등의 불교전적과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그리고 국제원효학회에서 영역하고 있는 원효 스님 저술본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본지 280호 9면 참조〉

〈대일경〉 등 밀교경전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진각종 종학연구소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미하지만, 국내 불교전적 전산화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밀교경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외에도 불교전적 전산화는 미국의 아시아 고전입력 프로젝트(ACIP)에서 진행하는 티베트 대장경 전산화, 인도의 부드스리(Budhsir)와 영국의 빨리 성전협회(PTS)에서 추진하는 빨리대장경 전산화, 대만의 씨베타(CBETA)에서 만들고 있는 대정신수대장경의 전산화, 미국의 버클리대학과 일본의 하나조노대학의 불교 고문헌 전산화, 일본 도요카구엔대의 불교용어색인 전산화 등 1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합대장경의 효과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완성되면, 대장경의 학술적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만큼 당연히 팔만대장경이 주 텍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통합대장경 제작 과정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번역·색인 등의 연구들이 깊이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경전의 전산화는 경전 내용을 '의미', '키워드' 등에 따라 최소 정보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밟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색인본(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팔만대장경은 국내·외 학계로부터 최고의 대장경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 연구 과정에서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보다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신수대장경에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색인본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불교학 연구 방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불교학 연구는 우선 2~3개 언어로 기록된 경전들을 해석·비교하는 등의 문헌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했다. 영인본 대장경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구를 찾고, 또 그 문구의 전·후 내용을 분석해,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추론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제공하는 색인·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불교학자들이 십분 활용한다면, 문헌조사에 쏟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설의 핵심을 밝히는 데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외에도 팔만대장경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빨리어 대장경 모습.

대장경이란

삼장·고승저술 등 일체의 불경 총칭

대장경이란 일체경, 삼장경 또는 장경이라 부르는데 경·율·논 삼장뿐 아니라 고승들의 저술 등 불교연구에 관한 기록을 모아 만든 일종의 총서를 말한다.

부처님 입멸 후 결집된 최초의 경전은 고대 인도 언어인 범어(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4차에 걸쳐 결집된 범어 경전은 논장의 주석만 남았을 뿐 원전을 알 수 없다. 현존하는 대장경은 크게 팔리어 경전, 티베트 대장경, 한역대장경으로 나눈다.

현존하는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대장경은 팔리어 경전이다. 대승불교가 성립하기 이전인 기원전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기록돼 동남아로 확산됐다.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운 장경으로 대승경전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7세기경부터 시작해 9세기에 번역이 대부분 완성된 티베트 대장경은 한역대장경에는 없는 후기 대승불교 경전이 많아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401년 중국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명에 따라 처음 판본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북경판, 델게판, 신(新)나르탕판, 초네판 등 20여종의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원문에 충실해 범어 원전 복원에 귀중한 자료다. 1967년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기증한 라사판 대장경을 비롯해 북경판과 델게판 등 4가지 판본이 동국대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대장경이라고 알려진 것은 한역대장경이다. 대승과 소승의 삼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분량이 가장 많다. 한역대장경의 시초는 972년 송나라 태조 때 제작된 북송칙판대장경이다. 당나라 때 제작된 불교경전 목록인 개원석교록을 바탕으로 12년에 걸쳐 완성된 이 대장경은 최초의 목판대장경이기도 하다. 금나라 침입 이후 대부분 스실되었다. 그러나 칙판대장경은 이후의 대장경 조판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고려초조대장경, 거란대장경, 고려속장경, 고려대장경 등 30여종의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한역대장경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이다. 고종 23년(1236)부터 16년에 걸쳐 조성된 팔만대장경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일본의 활자판 대정신수대장경(1924~1934)의 저본이 되었던 대장경이다. 현존하는 대장경판 중 최고(最古)의 것으로,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는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한글창제 이후 경전 번역이 시작돼 언해본이 제작됐다. 그러나 부분적인 경전 번역이 아닌 본격적인 한글대장경 사업은 1964년 동국역경원이 고려대장경 한글 번역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올해 말이면 사전·목록류를 포함 총 320권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된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통합대장경을 만들며

이종철

불교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면서, 홀린 땀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가 적어 일찍 포기해 버리고 마는 과정이 아마도 문헌학적 훈련일 것이다. 불교문헌의 한 글자 또는 한 음절까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빠진 것은 메워넣고 틀린 것은 고치고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왜 다를까 설명해야 하는, 그 지긋지긋한 고행길을 자기학대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좋아할까? 하지만 일상인이 보기에 수행자도 자기학대증에 걸린 정신병자로 보이듯이, 불교학자라면 당연히 이 길을 거쳐가기 마련이다. 불교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행자 가운데 한 소식 깨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무언가 차이가 나듯이, 그 길을 지나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경계선이 있다. '문헌학' 하면

한국불교 주체성 찾기

문헌학적 연구 심화

어딘가 좀 모자란 하근기의 학자나 하는 작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현재의 한국 불교학계의 지배적인 풍토이지만, 이는 진정한 사상적인 천착은 문헌학적인 엄밀성과 정직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학문적 나태의 소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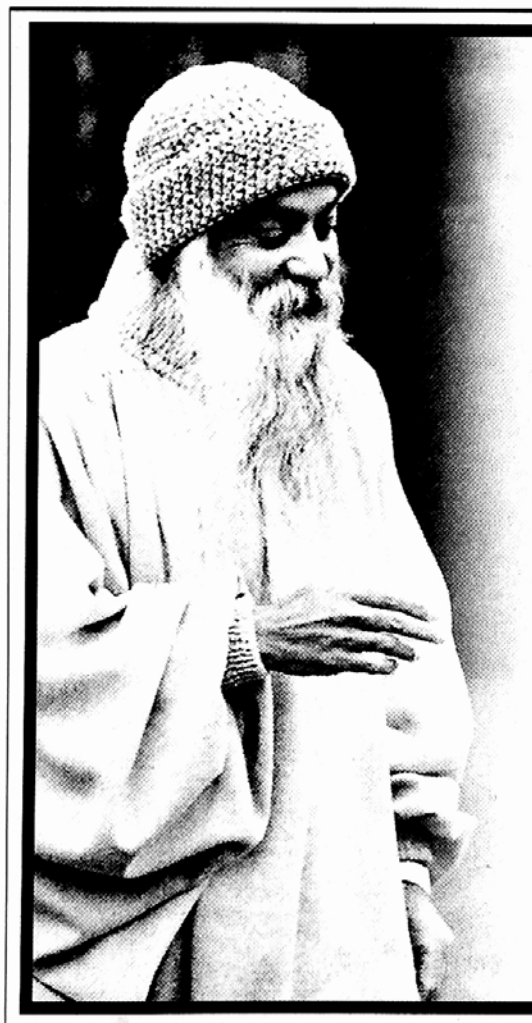
이제 예전과는 달리 불교학에 매진하는 연구자의 연구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문헌 데이터를 CD ROM 한 장에 담아낼 수 있게 되었고 덩달아 불교 연구자가 겪어야 하는 고생길도 반은 줄어든 것 같다. 태국에서 빨리대장경이 CD ROM으로 출간되었고, 미국에서는 티베트대장경을, 대만에서는 대정신수대장경을 부분 출간하였고, 우리 나라의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는 고려대장경 전체를 조만간 CD ROM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정도 문헌이라면 이제는, 대학에서 기본적인 어학을 배우고 문헌학적인 훈련을 2~3년만 잘 닦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불교 사상의 대해에서 마음껏 노닐 수 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측에서는 좀더 욕심을 부려 이 모든 대장경을 하나로 엮어내는 디지털 통합대장경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천학비재인 내가 그 막노동판의 십장 노릇을 맡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왜 통합대장경이 불교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국내 일부 불교 연구자들의 연구는 편식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지금의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적손이라 하더라도, 선불교만이 최고요 다른 불교 전통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막나가면 "이게 정말 불교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전문 학자들이 모이는 학회에서조차도 남방불교는 소승, 〈구사론〉도 소승이라 폄하하고 '티베트 불교' 하면 라마교라 멸시하고 '일본 불교' 하면 대처라 해서 가소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니 오직 중국불교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객관성을 중히 여기는 학자의 태도일까? 내가 겪은 바로는 티베트 사원에서 게쉐(박사) 학위가 있는 승려 한 사람만 와도 우리 나라 학계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티베트불교의 수준은 높다. 역사, 역사 따지지만 지금의 선불교의 전통이 남방불교의 역사만큼 깊을까?

통합대장경의 핵심은 '다언어 하이퍼텍스트'(multilingual hypertext)를 구성하는 데 있다. 현재의 학계 상황에 대비시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불교학 연구의 방법론이나 편식증적인 연구풍토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한국불교의 존재양상도 크게 바뀔 것 같다. 첫째, 문헌학적 연구에 뿌리를 둔 불교사상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뚜렷한 문헌적 근거도 없이 상상력으로 지어내는 말에 다들 식상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제문제에 대해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다양한 불교문화권의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한국불교는 새로운 '불교문화종합'에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백화제방(百花齊放)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방식인데, 현단계에서 한국불교 나름의 '문화주체성'을 확고히 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심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